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무안 명시 ‘진전’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시·도지사 공동발표문 의미

2시간 대화 끝 ‘무안 설득’ 합의
‘의미있는 진전’ 단서 해석
분분市, 지원기금 선 적립 등 제시해
제3후보지 언급 없이 무안 집중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과제의 한 축인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을 위한 진전된 합의안이나 오면서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7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을 열고 기존보다 진전된 발표문을 내놔다.

이날 현장에는 양 기관 관계자 수십명이 자리했고, 기자단 역시 지난 5월 첫 회동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만남에 큰 관심을 보였다. 2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양측은 큰 골자에서 ‘민간공항을 이전하고 무안군을 같이 설득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주목할 점은 발표문 안에서 군공항과 관련해서 ‘설득하겠다’는 정도로만 정리됐고 민간공항은 확실히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5월보다 진일보한 것이며 광주시로서는 ‘통큰 양보’라 할 수 있다.

발표문 대로 진행된다면 민간공항은 KTX 무안공항역이 개통하는 2025년께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는 무안군의 설득과정과 연결돼 해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이전이 불가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해석이 분분한만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선부터 추측을 경계했다.

김영록 지사도 “의미있는 진전의 해석 여부를 두고 정확한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도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말고 폭넓게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제3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무안에 대한 시·도간의 공동 노력이 강조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실제 짧은 발표문 안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과 더불어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비를 담보하기 위해 지원 기금 선 적립을 포함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존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득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공동발표문을 통해 양 지자체는 다른 결과지들은 모두 쳐내고 오로지 무안군에 대한 공동 설득 노력, 공동 지원 등에 합을 맞춰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 시장은 지난 5월 합의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으나 민간공항 이전을 명시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 “무안 군민들에게 광주시의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앞으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발표, 굳어진 마음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 역시 “이제 남은 것은 무안군과의 대화”라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풀기 위해 시도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늘 발표문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소 럼피스킨병’ 농가 이동제한 해제

“추가 발생 없어 조기 종식”

전남도가 신안과 무안에서 소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이뤄진 방역지역 내 소 사육 농가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방역 조치는 긴급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나 백신 항체가 형성됐고, 현재까지 럼피스킨 추가 발생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신안 방역지역 농장을 시작으로 무안 방역지역까지 전체 소 농장

657곳에 대한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소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선 지난 10월 충남 서산 한우농가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전남에선 10월28일 신안, 31일 무안 한우농장에서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전남도는 10월29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재난·보건 부서와 해충구제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했다.

전남지역 전체 소 67만3000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정부 계획보다 5일 빠른 11월5일까지 마치고, 해충방제, 발생 시·도의 소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곳 잠정 폐쇄 등 방역을 강화했다.

긴급방역비 9억원, 소독약품 39톤, 해충 방제약품 18톤을 지원해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국 9개 시·도에서 107건이 발생하는 동안 전남에선 총 2건에 그쳤다.

최황지 기자

‘광주민간공항...’

1면서 계속 강 시장은 이어 이번 발표문과 관련 “지난 5월과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민간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면서 “발표문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많

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앞으로도 강 시장님과 더불어 무안군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일보 페이스북
facebook.com/jnilbo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

Yes & True

balanced

]

밸런스 라인

XPERON

엑스페론

facebook.com/jnilbo